

# 거리두기 3주 연장...“이미 무용지물” vs “현재로서는 최선”

### 이달 23일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 등 연장 “의미없는 거리두기” vs “방역 느슨해선 안돼” 전문가 “만일의 집단감염 대비 위해선 필요”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방역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들 일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전모(26)씨는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상황여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카페, 음식점에 사람이 많다”며 “강남 등에선 불법 유흥주점이 여전히 성행 중일 만큼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인데 기간만 계속 늘려서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대학생생 배모(26)씨는 “다소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700명대선을 유지하는 걸 보면 다른 조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도 거리두기 효과를 따지진 않는 걸 보니 거리두기 연장이 관성적인 절차가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조치에 생계부터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31)씨는 “방역단계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은 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도 별 감흥은 없지만 지금껏 수입이 계속 줄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회복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서 요식업을 하는 이모(45)씨는 “시간 제한을 두고도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거리두기에 피해를 보는 건 자영업자들”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연장은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대학생 정모

(26)씨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사람들의 외출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이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연장할 순 있지만 방역 지침을 지금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홍모(29)씨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더 엄격히 시행한다고 하면 자영업자 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어 현 방역 지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 의식 때문에 오히려 방역을 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불법 유흥업소 적발 등 방역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조치 등 방역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나마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국민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모임은 자제하고, 힘들더라도 자제해야 집단 감염 사태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배곡한 텐트들** 휴일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가족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찰 “한강 사망 대학생 상처들, 물길에 부딪혀 난듯”

### 한강 실종 대학생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 결과 나와봐야”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일부 찢어진 상처와 관련해 경찰은 물길에서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와 관련해 목격자를 찾는 등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A씨 사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맡겼다.

유족 등에 따르면 국과수가 전날(1일)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A씨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 개가 있으나, 이 자상이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뺨 근육 부분의 일

부 파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는 지난달 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아들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이의 상처가 두 개 나 있었다”며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처럼 굵고 깊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상처들이 물길에서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난 상처들은 물길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 결과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사립대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에 친구를 만나러 집 근처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다. A씨는 실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다음 날 종적이 묘연해졌다.

함께 있던 친구는 25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의 부모와 통화에서 A씨가 위해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친구는 통화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1시간 뒤 일어났고 A씨가 먼저 갔다고 생각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오전 4시30분께 반포나들목 폐쇄회로(CC)TV에는 친구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A씨 부모는 오전 5시30분께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아나섰다. A씨 아버지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을 찾아달라는 글을 올리다가 하면 ‘실종된 아들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실종 지역 일대에 걸었다.

A씨는 지난달 오후 3시50분께 실종 장소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발견됐다. 민간구조사의 구조조건이 검정 물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응했고, 이를 뒤집어 보자 A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처럼 과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순천시, 체납 지방세 암호화폐 압류로 징수...전남 최초

### 300만원 이상 체납한 377명 보유 가상자산 64억원 추적

순천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또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서, 지난달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도 최초로 암호

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77명의 체납액 64억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했다.

시는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